

김선빈, KIA 유니폼 계속 입는다

4년 총액 40억원에 FA 계약…2008년 데뷔 후 ‘KIA맨’

“팀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솔선수범 제 역할 다 할 것”



KIA 타이거즈 김선빈(왼쪽)이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구단 사무실에서 FA 계약을 체결한 뒤 조계현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선빈(31)이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다시 한번 입는다.

KIA는 14일 내야수 김선빈과 4년 총액 40억원(계약금 16억원·연봉 18억원·옵션 6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08년 신인드래프트 2차 6라운드 43순위로 KIA에 지명된 김선빈은 2008시즌부터 2019시즌까지 KIA에서만 뛰었다.

1군 통산 11시즌 동안 103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0(3240타수 973안타) 23홈런 351타점 502득점 132도루를 기록했다.

김선빈은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 기쁘고 인정해주신 구단에 감사하다”며 “팀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계약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을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운동에만 전념해 올 시즌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디펜딩 챔피언’ 우즈벡, 한국 수비라인 담금질에 최적의 팀

오늘 오후 3차전 경기 나서

중국·이란전, 역습에 취약

토너먼트 전 최종 점검 기회

올림픽 예선을 겸한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조별리그에서 2연승으로 8강행을 확정한 김학범호의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김학범호로서는 최상의 스파링 상대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자 이번 대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토너먼트에 대비한 마지막 담금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수비라인 점검이다.

김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5시15분(이하 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탈마삿 경기장에서 대회 3차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 나선다.

이미 중국전(1-0), 이란전(2-1)에서 2연승을 거두고 8강행을 확정한 만큼 한국은 한걸 가벼운 마음으로 우즈베키스탄전을 치를 수 있다.

김 감독은 1, 2차전에서 주로 공격 자원

에 변화를 줬다. 1, 2차전에서 교체 투입된 6명 모두 공격수와 미드필더 지원이었다.

반면 수비진은 골키퍼 송범근과 주장 이상민, 김진아를 제외하고 1차전과 2차전을 다르게 구성한 뒤 풀타임을 소화하게 했다. 중국전에서는 김진야-김재우-이상민-강윤성으로, 이란전에서는 김진야-이상민-정태욱-이유현으로 포백을 구성했다.

하지만 수비진은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1차전 중국의 역습에 파울로 상대 반격을 끊는 모습을 연달아 보였고, 2차전에서는 2-0으로 앞서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골을 허용했다.

상대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이란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는 팀이다. 지난 2018년 대회 4강전에서 한국을 4-1로 꺾고 우승까지 차지한 강팀으로, 당시 멤버가 6명이나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펼쳐졌던 친선 2연전(1승1패)에서도 날카로운 역습을 선보였다. 당시 야크시보에프는 두 경기 연

속골을 기록하며 ‘경계순위 0순위’ 선수임을 각인시켰다. 아울러 미드필더 아지운 가니에프도 위협적이다.

한국으로선 한순간의 실수가 패배로 이어지는 토너먼트를 앞두고 최고의 상대를 만난 셈이 됐다. 김 감독은 1차전과 2차전에서 주전 7명을 바꾸는 강수를 뒀다. 우즈베키스탄전에는 어떤 조합으로 강호를 상대할지 주목된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유영, 한국인 최초 동계유스올림픽 피겨 ‘金’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긴판 유영(16·과천중)이 2020년 로잔 동계유스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영은 1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3.11점, 구성점수(PCS) 67.38점으로 합계 140.49점을 받았다.

12일 쇼트프로그램 점수 73.51점을 합친 총점은 214.00점으로 유영은 출전 선수 16명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피겨 선수가 지난 2012년 시작한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유영이 처음이다.

크세니아 시니치나(러시아)가 총점 200.03점으로 2위, 안나 플로로바(러시아)가 187.72점을 얻어 3위에 자리했다.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유영은 깔끔한 연기를 펼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첫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앤젤에서 수행점수(GOE) 1.26점을 챙긴 유영은 이어진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루프를 연이어 클린 처리했다.

레이백 스핀과 스텝 시퀀스에서 레벨



3를 받았지만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소화했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은 최고난도인 레벨4로 처리했다.

이후 더블 앤젤-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플립, 더블 앤젤을 연이어 클린 처리했다.

레이백 스핀과 스텝 시퀀스에서 레벨

박인비, 세계랭킹 16위로 한계단 하락

지난주比 한단계 떨어져

도쿄올림픽 상위 15위 출전

고진영 25주 연속 1위



2020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을 앞둔 가운데 박인비(32·KB금융그룹)의 세계랭킹이 16위로 떨어졌다.

박인비는 13일(현지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4.10점을 기록, 지난 주 15위에서 한계단 떨어진 16위가 됐다.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이 열리기에 세계랭킹에 관심이 집중된다. 올림픽 출전권이 올해 6월말 세계랭킹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도쿄올림픽에는 세계랭킹 15위 이내의 경우 국가 당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박인비는 현재 세계랭킹 15위 밖으로 밀려났고 한국 선수 중 6번째에 자리해 있어 도쿄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하다. 박인비가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계랭킹을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박인비는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니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 스포츠 클럽을 랜드(파71·6645야드)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120만달러)에 출전한다.

박인비가 1월에 LPGA 투어를 시작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올림픽 출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시즌 초반부터 많은 대회에 출전해 세계랭킹을 끌어 올리기 위한 행보다.

한편 고진영(25)은 25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고진영은 로레나 오초아(2008·2009), 청아니(2012), 리디아 고(2016) 등에 역대 4연패 1년간 세계랭킹 1위 유지에 도전하고 있다.

뉴스1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